



축종별 맞춤형 ICT 장비 공급

축종별 특성 맞춤형 통합 제어시스템 연구개발
국내 넘어 해외 스마트 팜 시장 선도화 포부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축산기계자동화의 성공신화를 일군 기업이 이번에도 ICT축산에서 성공신화를 일군다는 일념으로 매진하는 기업이 있다.

(주)삼우(대표 안광덕)는 축산분야에서만큼은 세계 시장에서 자동화시스템 현지화 목표가 확고하다. 축산자동화로 국내에서 성공신화를 일군만큼 세계 시장에서도 ICT를 적용한 삼우의 자동화시스템 현지화이다.

안광덕 대표는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시장에서 축산기자재 부문 일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 우수한 인재영입 등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안 대표는 신속하고 정확한 A/S를 강조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구축한 20여 개의 센터 및 해외 지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여 삼우엔지니어링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30년 기술·노하우... 산·학 협력체계 구축

삼우는 1992년 급이기 중심으로 창업한 이후 다년간의 연암대학 산학 연구소와의 공동연구로 축종별 사육과정 및 특성에 맞는 제품을 개발, 다수의 특허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중국 하북성 창주시에 설립한 해외법인과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 내에서 지속적인 제품개발로 국내뿐 아니라 필리핀의 양계장에는 급이, 급수라인, 미국의 양계장에는 니플, 중국의 양돈장에는 계량통을 주력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축사 내 ICT 장비 보급 및 설치를 진행하여 사업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양돈과 양계, 축우 분야의 급이 시스템에는 고속 제한 급이 시스템, 고속 무제한 급이 시스템, 양돈 호퍼(hopper) 자동 시스템, 축우 제한·무제한 급이 시스템, 자동 개폐장치 등이 있다.

양돈·축우 제한 급이 시스템은 정해진 시간에 일정량의 사료를 공급할 수 있어 맞춤형 사료 급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맞춤형 사료 급이는 육질 개선과 사료 효율 개선, 인건비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평사용 자동급이기



고상식 자동급이기



자동화 시스템 현지화 목표 확고 ICT 적용 시스템 현지화에 심혈

삼우는 축산에서 중요한 급이, 급수, 온도, 습도, 환기 등 모든 시스템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간파하고 준비를 완료했다. CCTV를 통해 성장 상태, 건강 상태도 24시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 농가들의 만족도가 높다.

삼우는 ICT(정보통신기술)와 IoT(사물인터넷) 기술 접목 구현에 박차를 꺾하기 위해 관련한 인력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삼우의 주요 ICT 제품은 사양관리기 부문에서 자동 급이기 제어기는 전 축종별 특성을 고려, 이에 적합하도록 개발했다. 급이, 급수시스템도 간단한 구현방식(카운터 방식)으로 농가에서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성품 스위치 와이더넷 랜선사용으로 값비싼 통신박스,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로드 셀에 비해 저렴한 가격대로 제품을 보급하고 있다.

전 축종 공통으로는 통합제어기와 축사환경 제어시스템(헨 컨트롤) 헨, 쿨링패드, 헨컨트롤 외 농장사양, 규격에 따른 맞춤형 설계로 릴레이 32개까지 설치가능하고, 레벨 환기 자동제어도 가능하다. 조절은 앱이나 웹서버 원격 제어도 가능(PC, 모바일)하다.





니플 자동급수 시스템



박킹용 니플



원주형 니플

육계시장 확대 예측...계사관리 시스템 만전

삼우는 앞으로 백색육 육계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개발한 통합제어기, 양계 급이, 급수, 환경 통합제어시스템(플래티넘 프로)과 통합제어기·양계 급이, 급수, 환경 통합제어시스템(시그마)이 있다. 이 모두 농장사양, 규격에 따른 맞춤형 설계 릴레이를 최대 50개까지 설치 가능하고 레벨환기 자동제어가 가능하며 앱·웹서버 원격제어도 가능(PC, 모바일)하다.



사각형 니플